

“로컬 콘텐츠 자립 여건·자체 수익구조 만들어야”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에 사람을 연결하다

한 번의 고배를 마신 후 다시 로컬 크리에이터 선정을 위한 지원계획서를 준비하고 있다는 박하정(34)씨는 지역 특화 콘텐츠에만 집중해 고객층이 한정된데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박씨는 “로컬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강조하다 보니 확장 가능성이 낮았고, 구매 고객들의 실제 니즈나 구매력을 파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며 “로컬 크리에이터를 준비하는 이들 대부분은 소규모로 시작하는 분이 많아 지역 또는 진흥원이나 정부 사업 등에서 선정되지 못하면 사실상 초기 자금 부족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투자 유치도 힘들어서 사업 자체를 이어나가기가 현실적으로 버겁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네트워크 부족으로 인해 지역사회 내 협력 및 타 크리에이터와의 협업도 어려워 좋은 제품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및 마케팅 부분에 있어 한계에 부딪힌다는 점도 난관이라고 짚었다.

박씨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경우 기관을 통한 협업 등 외부 파트너십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상 성장하기가 어려운데다가, 재무적이나 전반적인 관리 등에 도움을 받지 못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4>실패사례로 살펴본 문제점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에 어려움 기관 통한 협업·파트너십에 의존 손익분기점 미달 업체 47% 달해 실질적 지원 통한 사업 안착 필요

로컬 크리에이터에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지원정책이나 프로그램에 의지하기 급급하다 지원기간이 끝나면 사업이 흐지부지 끝나는 사례도 부지기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도시와 커뮤니티 연구소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시행된 ‘2020년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지원한 예비 창업가 50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매출 5000만원 미만인 로컬 크리에이터 비중은 67%, 1000만원 미만인 업체도 71%에 이른다.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한 업체 비중도 47%에 달하는 등 사업 성과도 현저히 낮다.

지난 2019년 기준 로컬 크리에이터의 평균 매출액은 6600만원으로, 평균 당기 순이익은 1100만원에 불과하나 평균 부채는 약 6400만원으로 이익보다 6배 가까이 많다.

이에 전문가들은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24년 로컬청년창업 지원사업 로컬 밸류업 캠프’ 참가자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전남도 제공

초기 단계에서의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한 이후 전문성 및 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경우 상관 쇠되거나 경기 불황때문이나 창업을 전제로 운영자금난에 시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융자나 보증, 투자 등 창업자금부터 시제품 제작, 마케팅 및 인건비 등 전주기적, 장기적 지원을 기반으로 틀을 잡아나간 후 각 사업체가 각자

의 로컬 콘텐츠로 자립 및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협동조합 그리곡성’을 운영 중인 추선호 대표 또한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려면 자체적인 수익 구조를 완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스타트업에게 지원금은 독이든 성배라고 생각한다. 초반에야 ‘자부담 20, 대출 20, 지원 60’ 비율 정도로 운영하겠지만 이 비율을 점점 바꿔 자부담

을 늘리는 것이 사업체를 지속할 방법”이라며 “언제까지 지원사업을 찾아가며 회사를 운영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지원사업이 사라지면 일이 끊기니 당장에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지원사업은 초기 창업가들에게 필요한 일이나 이를 잘 활용해 안정적인 회사 운영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하며,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 취재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지원을 받았습니다

오지현·박소영 기자

전남도, 에너지기업 맞춤형 지원책 모색

장성 나노기술 일반산단서 간담회

전남도는 지난 11일 장성 나노기술 일반산단에서 전남 에너지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맞춤형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현장 방문에선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국내 내수 침체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인 에너지기업의 현실적 문제를 직접 듣고, 필요한 지원책을 모색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그린이엔에스, ㈜스마트컴퍼니, ㈜엠텍정보기술, ㈜커넥티드 등 중소 에너지기업 관계자들은 기술 개발, 판로개척, 인력난 해결 등 다양한 현안과 애로사항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현장 방문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전남산 전통 장류 수출량 10년간 4.7배 증가

올 들어 3195톤 734만 달러 수출 대상국 36곳으로 확대도, 일류상품화 지원 ‘성공’

전남산 된장, 고추장, 간장 등 전통 장류가 해외에서 높은 인기를 끌며 수출량이 크게 늘고 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케이(K)-푸드 열풍이 전통 장류 수요 확대를 이끌며, 올 들어 11월 말 현재까지 전남산 장류 수출량이 약 3195톤으로 734만2000달러에

달했다. 이는 2014년 670톤(160만 8000달러)보다 4.7배 증가한 규모다.

품목별로는 간장이 1330톤으로 3.9배, 된장이 138톤으로 1.6배, 고추장이 1490톤으로 8.5배, 기타 장류가 236톤으로 3.4배 등 수출량이 크게 증가했다.

수출 대상국도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 36개국으로 확대됐다.

전남도는 전통 장류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농수산물품 세계 일류 상품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담양의 농업회사

법인 ㈜고려전통식품에는 된장과 딸기 고추장소스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도왔으며, 순천 소재 ㈜매일식품에는 필리핀 수출용 불고기소스와 고추장소스 개발에 업체당 6800만원을 지원했다.

중국 해외박람회 참가, 상하이·베이징 수출시장개척단 파견, 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등도 진행하며 글로벌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전통 장류를 프리미엄 건강식품으로 자리매김토록 지속해서 지원할 방침이다.

오지현 기자

전라남도 Jeolla Namdo

Joia (제)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남도 스토리뱅크 구축 운영사업

전라남도가 보유한 다양한 스토리 자원을 소재로 오리지널 IP를 발굴, 확보하는 3개년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작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전 개최**
전남을 소재로 한 스토리
* 2024년 전남 스토리 공모전 유망 스토리 IP 발굴 5건 완료
- 플랫폼 연계 지원**
공모전 수상 작품 대상 지원
* 플랫폼 연재를 위한 멘토링, 컨설팅, 프로모션 지원
- 콘텐츠 제작 지원**
웹툰, 웹소설, 애니메이션
* 콘텐츠 제작 관련 비용 지원